

02-7. 다분야 협진 치료를 통한 전치부 심미성의 회복

권미아*, 김유진, 주현경, 이주연, 김성조, 최점일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임상가들은 외상, 치아우식으로 인한 치질상실, 또는 심하게 치주질환에 이환된 치아를 치료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또한 전치부에 결손치가 있거나 전치의 크기나 모양에 이상이 있어 보철하기에는 심미적으로 부적절한 경우도 가지게 된다. 그러한 사례들은 근관치료, 치주적 전치치, 치아 이동 등의 다분야에 걸친 체계적 접근을 통해 잔존치와 치주적 구조물을 유지하면서 지대치를 심미적, 기능적 위치를 이동시켜, 형태적, 기능적, 그리고 심미적 재건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전치부의 치료에 있어, 치주외과적 술식만을 이용한 치관연장술로 치은 레벨을 수정하려고 할 경우, 지지골 희생과 인접치와 부조화를 이루는 치은외형으로 특히 전치부에서는 비심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교정치료는 치아의 치은 및 골연의 외형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인접치와 조화되는 치은 레벨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추가적인 치주외과 술식을 동반한다면 예지성을 높이는 이상적인 전치부 심미성을 얻을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비심미적인 전치부를 가지는 환자에서 다분야 협진 치료를 통해 전치부 심미성을 회복시킨 증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치아 총생을 주스로 내원한 20대 중반 여성환자에서 교정치료를 통해 전반적인 치열을 개선시키고, 기존 보철물이 탈락된 좌측 측절치는 교정적 정출 후 치주외과 술식을 통해 치은레벨을 수정하고 provisional restoration을 통해 재보철하였다. 돌출된 견치부에서는 치축 개선과 상피하결합조직이식으로 치근면을 피개하였으며 우측 측절치는 치은 절제술을 통해 높은 치은연을 개선시켰다.

연구결과

치아 총생으로 인해 비심미적인 전치부에서 교정치료를 통한 치아의 배열로 전반적인 치은 및 골연의 외형 변화를 피하였고, 추가적인 치주외과 술식으로 인접치와 조화되는 치은 레벨을 부여하여 전치부의 심미성을 얻을 수 있었다.

결론

비심미적인 전치부를 가지는 환자에서 다분야에 걸친 협진 치료를 통해 절충된 결과가 아닌 이상적인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